



‘서태지와 아이들’ 통해 대중문화 분석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
펴낸 이동연씨



90년대는 우리의 대중문화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한 시기이자 동시에 담론의 새로운 주체로 도약할 만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연대다. 이 연대는 ‘어린’ 가수들이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총아로 떠오르고, 그들이 그려내는 문화의 지형을 곱씹어보이는 ‘문화평론가’들이 줄줄이 탄생한다.

최근 나온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며》(겨레)는 이러한 담론의 최고 정점에 위치해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음악세계를 요즘 ‘잘 나가는’ 문화평론가 가운데 한 사람인 이동연(31, 중앙대 영문과 강사, 《문화과학》 편집위원)씨가 분석한 책이다.

“저 나름대로는 서태지가 우리나라 대중음악에 현존하는 최고 뮤지션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기호만으로 한 권의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니다. 그것보다는 그런 음악이 탄생하게 된 90년대 한국사회의 문화적인 조건들, 그리고 그의 음악이 낳은 문화적인 파급효과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더 큰 관심이 있었습니니다.”

이 책은 대중음악을 통해 대중문화를 보겠다는 의지의 소산이지만, 그렇다고 음악 자체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하고 오로지 현상만을 가지고 ‘설(說)’을 풀 것은 아니다. 매우 상세하게 서태지의 노래들을 한 곡 한 곡 분석하고(4장-서태지음악의 실제 분석), 다른 대중음악과의 비교를 위해 90년대 대중음악의 각 갈래를 대표적인 뮤지션을 통해 살펴본다(2장-90년대 대중음악의 갈래와 서태지 음악). 대중음악 전반을 점검하는 키워드로 서태지음악을 분석한다 싶을 만큼 최근 유행하는 테크노뮤직, 팝과 발라드, 록과 메탈, 포크음악을 분석하는 그의 눈은 매우 포괄적이다.

저자가 보는 90년대의 문화적 상황은 더 이상 역사의 짐으로부터 억눌림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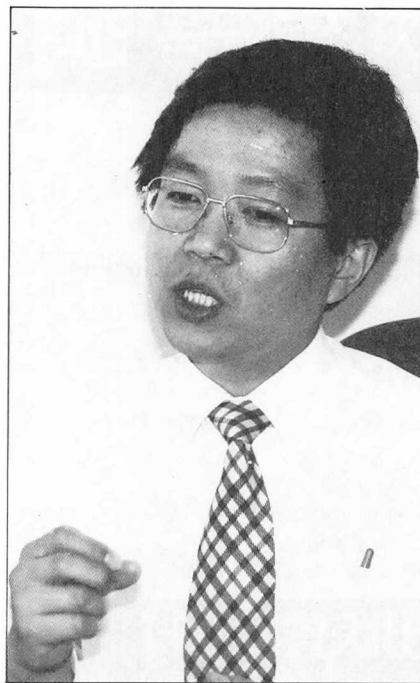
그리고 참기 어려운 것을 애써 견디지 않는다. 서태지는 본격적인 문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들의 다양한 욕구와 욕망, 규범화하지 않고 고정된 사회인습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신세대들의 표본집단인 셈이다.

“그들은 우리 사회에 랩을 유행시켜 일상생활에 기이한 소통방식을 낳게 한 장본인들이고, 그의 앨범은 음반산업의 호황기를 마련해 주었을뿐 아니라 기존의 음반 제작방식의 관행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의상과 춤은 그대로 신세대들에 의해 복제되고 유통되어 유행을 만듭니다. 그들은 신세대 문화를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적 요건이 그의 음악을 생산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음악이 문화적인 조건을 생산한다는 점이지요.”

그가 서태지를 높이 사는 이유는 우선은 뮤지션으로서의 흡입을 데 없는 능력 때문이고, 둘째는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주체적이고 건강한 모습을 신통할 만큼 잘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셋째로는 실험정신과 도전의식을 갖추고 음악의 미래에 도전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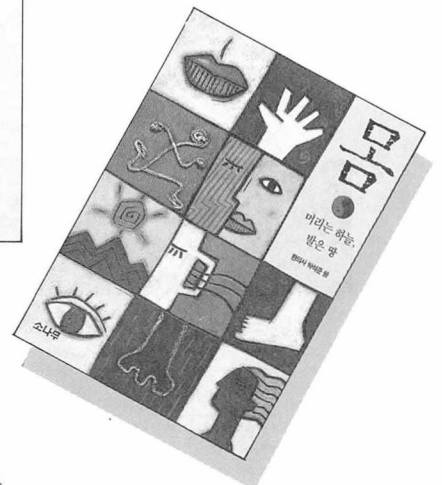
나이만으로 보자면 신세대도, 더더구나 X세대도 아닌 ‘썬’ 세대에 속하는 그지만 콘서트장에 가면 역시나 10대들 마냥 열광하고 감동받는 열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서태지의 자기부정은 부정의 응축만큼이나 강한 실험정신으로 포괄하는데, 그 도전이야말로 참으로 그다음 신세대가 꿈꿔야 할 유토피아가 아닌가.” 그의 서태지 애작론이다.

—정혜옥 기자



한의학의 관점에서 본 ‘몸’의 건강

《몸》 펴낸 박석준씨



머리는 하늘, 발은 땅.
“머리부터 발끝까지 활달한 기운이 흘러넘칠 때 비로소 몸이 화평해진다”고 말하는 박석준씨(37, 양재동일한의원 한의사). 3대째 한의사 가업을 잇고 있는 그가 최근 한의학에 기대어 건강상식과 장수법을 정리한 《몸》(소나무)을 펴냈다.

“사람마다 먹는 음식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 개인차는 있지만 빠르게 자고, 맛있게 먹고, 알맞게 움직이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연과 동떨어져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죠.”

때문에 《몸》은 혼자 힘으로도 자신의 몸을 다스려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한편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나 자세는 고칠 것을 종용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효용가치는 두가지. 쉬운 것 같으면서도 현대인의 습성으로 지키기 어려운 몸 관리법을 각 기관별로 꼬집어내어 한의학의 관점에서 기술한 점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방’ 개념을 구체화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어느 정도 자리를 굳힌 다음에 건강을 돌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건강상태를 체크하면서 몸에 좋다는 약을 찾아 나설 나이가 되면 이미 몸에 ‘적신호’가 들어와 있거든요.”

건강을 잃고 나서 모든 것을 맥없이 놓지 말고 병이 오기 전에 예방하라는 얘기다. 그 첫걸음은 자신의 몸관리에 있다며 박석준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려가면서 신체 건강관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정리해 놓고 있다. 손톱으로 알아보는 자가진단법을 비롯해 각 기관마다 적절한 관리법을 소개한다. 감각기관은 물론 신장과 관계 깊은 뇌, 오장육부와 직결됐다는 피부관리, 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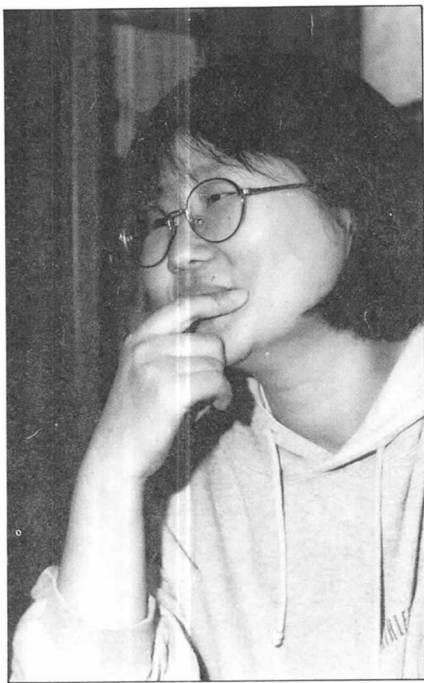
근육건강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일으킬 수 있는 ‘탈’에 대해 적절한 식이요법과 치료법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어 “조금만 자기 몸에 애정을 갖는다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박씨는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때문에 도리어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다”며 한의학의 관점에서 권할 만한 건강상식들을 과학적으로 규명, 열거하기도 한다. 한 예로 잠에 관한 건강법을 보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은 때는 가을뿐이다. 봄·여름에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며, 겨울에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야 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박씨는 사상의학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긴 부친 박인상씨 덕에 어려서부터 한의학의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장남인 형님이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는 경제사를 전공했다. 그 후 가업을 잇기 위해 한의학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한의학이 “지극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학문”임을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는 현재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사람들과 함께 설립한 ‘동의과학연구소’에서 동양철학을 공부하는 한편 《동의보감》을 집중 연구하고 있다. “인체가 한의학이라면 동양철학은 정신이기 때문에 한의학이 현대과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이라는 지론도 펼친다.

—배은희 기자



여유와 통찰 돋보이는 유럽 '산책기'

《삶보다 아름다운 풍경은 없다》
펴낸 김혜정씨



배낭을 메고 유럽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이 해마다 늘어난다. 그에 따라 배낭여행 안내서들도 다양하게 쏟아져 나온다. 주요 관광지와 숙박시설, 환전소, 교통편 등이 도표와 함께 상세히 적혀 있는 그것들을 통독한 뒤 젊은이들은 비싼 항공료의 부담을 안고 떠난다. 그 항공료를 뵈으려다 보면 일정표는 딱딱해지게 마련이다.

“배낭여행 안내서나 정보지를 들고 다니면서 거기 적힌 대로 찾아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 식의 지도’를 준비해야지요.”

《삶보다 아름다운 풍경은 없다》(살림터)를 펴낸 김혜정씨(34, 작가)는 기왕 부담을 안고 떠나는 여행을 좀더 유용한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일정을 소신있게, 그리고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여기도 가봤고 저기도 가봤다’고 자랑하는 게 목적이 아닐 바에야 몇군데 꼭 가야 할 나라를 잡아 깊이있는 예비지식을 갖추고, 최소한 며칠간 머무르면서 진짜배기 ‘삶’의 냄새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미술관을 탐방하기로 계획을 세웠다면 소문난 관광지를 둘러보는 일에는 ‘간식’ 정도의 비중을 두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씨가 갖 결혼한 남편 홍상길씨(33, 동아방송 사진기자)와 함께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떠났던 것은 90년 3월, 방송작가 생활 5년 동안 모든 목돈이었던 전세금과 결혼축의금을 들고서였다. 홍씨의 영상작 공부를 위한 출국이었으나, 예상을 훨씬 웃도는 학비 때문에 홍씨는 “이른 대신 실습의 한 방법”으로, 김씨는 “5년간 열심히 일했으니 1년쯤 잘 쉬는 방법”으로 “여행이나 실컷 하다가 돌아가”기로 합의를 봤다. 이 용감한 젊은 부부는 1년동안 물가가 쌀 헝가리에 방을 얻어두고 열심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열심히 사진을 찍었다. 여행보다는 ‘산책’에 가까웠던 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뒤 김씨가 KBS 제1FM <당신의 밤과 음악>의 원고를 쓰면서 전과를 났던 이야기들이 이 책으로 묶여 나온 것. 홍씨가 찍은 사진들도 ‘다정하게’ 함께 실려 있다. “저는 자신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 정말 겸손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목소리를 내며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작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다보면 과연 그 넉넉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섬세한 통찰력과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시정(詩情)이 있는 나라’ 헝가리에서의 생활을 그린 <두나 강변의 사람들>이나 ‘아무것도 두렵지 않을 만큼 정다운 도시’ 프라하의 풍경을 담은 <자꾸 뒤돌아바치는 도시, 프라하> 등은 ‘잘된 여행’이 사람의 정신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아름다운 글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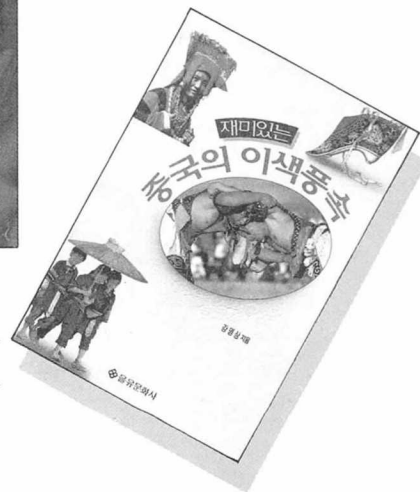
대학시절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환절기>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고, 지난 93년 장편소설 《숲으로 가는 사람들》을 출간한 바 있는 김씨는 8개월 된 둘째아들이 젖을 땔 무렵인 올 가을부터 새 장편소설을 집필할 생각이다. 또 두번째 유럽 산책은 3년쯤 뒤, 포르투갈에 방을 얻어 두 아이의 조막손을 이끌고 시작해볼 예정이다.

—한 강 기자



중국 소수민족에 관한 풍성한 읽을거리

《재미있는 중국의 이색풍속》
펴낸 강명상씨



‘리족’은 축제일이 되면 ‘빠양’이라는 술을 단지에 부어 여기에 여러개의 긴 빨대를 꽂고 여러명이 자기 주량 만큼 술을 빨아먹는다. 술이 떨어지면 단지만 교체한다. 또 타이완 동부지역에 사는 ‘까오산족’은 결혼식 때 신랑을 주축으로 친척, 친구들이 큰 무리를 지어 신부집까지 뛰어간다.

중국 대륙의 3분의 2 지역에 살면서 중국 전체인구의 6%를 차지하는 55개 소수민족들. 그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기록한 《재미있는 중국의 이색풍속》(울문문화사)은 현대인의 편에 서서 보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전통을 중시하는 이들 소수민족들의 이색 풍속을 각기 결혼·장례·역법·축제·민속경기·식생활·신앙과 종교·주거와 생활·장신구·작명법·교통과 운송수단·전래 민간문학으로 구분지어 기록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어느 장을 읽든지 부담이 없는데다 마치 오지를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그대로 전달하는 여행기다. 이러한 현장감은 완벽한 ‘중국통’으로 잘 알려진 강명상씨(49, 경남대 중문학과 교수 겸 중국관계연구소 소장)가 직접 찍은 풍부한 사진자료에서도 드러난다.

대만 국립정치대와 중국 문화대 대학원에서 십수년간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중국 각지의 방언을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강명상씨. 그가 중국 소수민족들의 풍습과 문명의 발전과정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20여년 전부터이다. 중국 문화대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에 관한 논문 <중공 민족자치구 통치형태>를 발표한 것이 구체적인 계기가 됐다. 그러나 “소수민족이 사는 현지를 답사하지 않고 쓴 논문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려서” 1984년부터 현장답사를 감행했다.

“중국 소수민족들이 그들의 혈통이나 풍속,

문자와 언어를 의외로 잘 보존하고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자 연구과제였습니다.”

《재미있는 중국의 이색풍속》에 기록된 것처럼 고려시대의 풍속이 서북 고원지대에 사는 ‘투족’에게서도 발견됐다. 그들의 민속경기 중에 ‘윤자추(輪子秋) 경기’가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빙빙 도는 ‘붉은 그네’는 <한림별곡>의 한 대목과 일치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중국 소수민족 이색풍속’이란 제목으로 2년간 신문에 연재하는 동안 국문학자들로부터 “의문점으로 남아 있던 붉은 그네의 실체를 알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또한 윤남성의 라후족은 쌀과 옥수수로 만든 밥을 먹고 천장에 메주도 매단다. 씨름경기를 할 때는 라후족말로 ‘부또라 부또(不多拉不多)’라고 응원한다. 현지 안내인은 “힘을 내라”는 말로 전해줬으나 강교수는 “불어라 불어”하는 소리로 들렸다고 한다.

“소수민족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언어와 풍속이 우리와 흡사한 이들을 두고 당나라 때 고선지(高仙芝)장군을 따라갔던 말갈·선비족(鮮卑族) 계통의 후예들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들의 이색 풍속을 기록하느라 강씨는 여러 고비의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렇지만 그곳 여행을 통해 강씨가 언어·민속·문화 등 현재 진행중인 연구만 해도 중국 소수민족에 관한 포괄적이기도 방대한 연구이기에 그 출간이 자못 기다려진다.

—배은희 기자